

소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섬머셋 구역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은 구역 Somerset

섬머셋 구역은 변방의 위치에서 본당구 역이라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이는 어른이 되고, 어른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현세를 위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행사에 본당 구역으로써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랜시절 미국 성당 셋방살이로 이리저리 옮겨다녀도 곳곳에 에디슨 성당을 지켜내신 선배님들이 많으시고, 커플이 혼인성사를 통해 부부가 되어 잘 사시며, 봉사도 많이 하는 구역원들이 특별히 많은 섬머셋 구역은 은총을 특별히 많이 받는 구역입니다.



섬머셋 구역에는 누가 있나요?

- 박재영 요아킴 + 안나 부부
- 백상현 요셉 + 가타리나 부부
- 오경선 원선시오 + 유리안나 부부
- 오현주 요한 + 데레사 부부
- 유병기 베네딕도 + 유리안나 부부
- 육순재 프란치스코 + 글라라 부부
- 이대우 베드로 + 데레사 부부
- 이석중 스테파노 + 헬레나 부부
- 김수완 세실리아 + Charles Skriner 부부
- 김윤정 데레사
- 방숙자 마리아안나
- 백원선 안나
- 이주연 카나리나
- 최영옥 모니카



연중 제20주일

2022년 8월 14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목요일
(8:30AM~1: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성전정화> 엘 그레코, 1600
런던 내셔널 갤러리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예레미야서 38,4-6.8-10
- # 화답송 시편 40(39),2ㄱ-4.18(© 14ㄴ)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제2독서 히브리서 12,1-4
- # 복음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복음 루카 12,49-53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 # 성가번호 입당 20 봉헌 216 성체 173 파견 2

미사지향 (연미사)

- 최복자(레지나) - 가족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권경희(글라라) - 이서형(요안나)
- 최완준 - 메타천 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28명).....\$1,385
- 감사헌금.....\$500
서범석(\$200) 소나영(\$300)
- 교무금.....\$3,200
박락준(7-8) 염기선(7) 유용희(7-9)
최영옥(8) 임문수(8) 변태용(7-12)
이윤경(8-9) 우영인(7-8) 오현주(7-8)
이용문(6-7)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2022 Bishop's Annual Appeal

- 7/1까지 약정금액은 \$43,502 (목표금액의 124.3%, 135 가정 참여)입니다.
- 6월 22일 기준으로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35,000목표금액의 122.93% 를 달성하여 교구청으로부터 \$3,173.25을 리베이트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디슨 한인성당 성모공원 조성기금 마련 골프대회 안내

- 일시: 9월 5일 월요일 (Labor Day) 12시
- 장소: High Bridge Hills Golf Club
- 참가 및 후원 문의: 오 토마스 (Thomas Oh) 917-662-8353
-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일시 및 장소: 8월 15일(월) 오전 9시, 경당
- 올해 성모 승천 대축일은 의무 대축일이 아닙니다.

2차 헌금

- 8월 14일: 유틸리티
- 8월 28일 : 교구청 주관 선교 후원금 모금(Missionary CO-OP)

미사 시작 10분전부터 삼종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8월, 9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입구에서 사무장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사무실 하계 휴가 안내

-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사무장 휴가로 인해 사무실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8월 28일 주일 미사지향은 8월 17일 마감입니다. 휴가 기간 중 사무장에게 전달하실 교무금, 감사헌금, 미사지향 신청 등 신청봉투는 봉헌금과 함께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사무장이 휴가 후 확인하겠습니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안내

- 9월 11일(주일)에는 추석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례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14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14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8월 21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메타천 교구청 주관 선교 후원금 모금

- 인도 건터 교구청 소속 Rajesh Kumar Nettam 신부님이 8월 20일 (토) ~ 21일(일) 선교 후원금 모금을 위해 본당을 방문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및 유스그룹 선생님 모집

- 신앙 안에서 주일학교 (K~8 grade)와 유스그룹 (9~12 grade)을 잘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 문의: 청소년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주일학교 학생 모집

- 개강: 9월 18일
- 접수: 8월 7일부터
- 대상: K ~ 8 grade학생
- 접수비는 \$65/학생
- 신청은 OLM 성당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청소년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메타천 교구 체키오 주교님의 주례로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30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제 1독서 예레미야서38,4-6.8-10

그 무렵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울안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 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에벳 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른 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히브리서 12,1-4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려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여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 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12,49-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모승천대축일의 유래와 의미

8월 15일은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고 공경하는 여러 축일 중 으뜸이라할 수 있는 성모승천대축일이다. 이날은 또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광복절이어서 한국교회와는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한국교회의 주보성인으로서 우리 겨레와 교회에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성모 마리아의 축일인 이날, 성모승천대축일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본다.

성모승천대축일은 성모 마리아가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 올려지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성모승천에 대한 교리는 일찍이 초대 교회때부터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에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성모승천대축일 전례가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5세기 초 예루살렘에서 8월 15일에 성모의 죽음과 승천을 기념해 지낸 「하느님의 어머니」 축일을 문헌상 그 기원으로 보고있다. 이후 당시 순교자나 성인들을 선종일에 기념하는 사상에 부응해 6세기 말 「성모 안식 축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비잔틴 황제 마우리치우스(Mauricius, 582-602)가 동로마제국 전역에 이 축일을 도입하고 8월 15일을 국가공휴일로 선포했다. 이 축일이 7세기에 서방 교회로 전해져 성모를 공경하는 축일로 널리 지내게 됐으며 축일명칭도 「성모 안식 축일」에서 「성모 승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례적 기원을 지니고 있는 성모승천대축일은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가 「성모 승천」을 믿을교리로 선포한 이후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비록 이 교리가 성서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믿음만한 전승과 구세사에 있어서 성모의 역할, 성모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교회안에서 믿을교리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성모승천은 우리에게 성모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희망의 표지가 된다.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어느 모로든 하늘에서 영혼과 육신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시어 내세에 완성될 교회의 표상이 되시고 그 시작이 되시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로서 빛나고 계신다』(교회헌장 68항)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성모님의 승천은 장차 우리도 받게 될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므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표지로 다가온다.

인간적인 눈으로보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승천은 하나의 「특권」으로 비치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와 상관없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와 더욱 가깝게 해주는 특권이다. 당신 아들을 믿은 충실한 제자이신 마리아와 일치하면 할수록, 주님과 일치하는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성모 승천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평생동정이신 분, 원죄없이 잉태되신 분,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공경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또다른 이유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거룩한 특권을 받았다는 것 외에도 그분께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순명에서, 하느님께 향하는 사랑에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봉헌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이다.

출처: 가톨릭 신문